

대원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꼭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불어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꽃으로 장식한 황금아치에 모신 불상을 범주 혜종 스님이 인도 녹야원 내 대각회본당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송용호(사이버 강원 부대의 메아리 대표)

## 인도 녹야원에 한국불상 처음 모셨다

12일 대각회 본당에서 봉안법회  
 한·인 수교 30년 기념... 종단협 등 후원

조선법류지인 인도 녹야원에 한국 전통 양식의 불상이 최초로 모셔졌다. 현대불교신문사는 1월 12일 녹야원에 위치한 대각회본당에서 혜종 스님(부산 감포사 주지)을 범주로 한국불상 이운 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성도집인 지난해 12월 28일 조성 집안식을 가진 석가모니부처님을 인도와 한국불교의식으로 봉안한 이 법회는 (사)한국 불교종단협의회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가 후원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봉안식에는 안도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웅 부산 관음정사 조사를 비롯해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강미리 부산대교수 등 80여 한국불자와 대각회 사무총장 수메다 스님, 허만수 바라나시 최고위원, 아로라 바라나시 도시, 미슈라 산스크리트 대학 부총장, 나왕 삼턴 티벳티안대학 부총장과 일본·티베트·미얀마 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인도 녹야원=김주일 기자

## 신계사 시굴 보고서 발간 조계종, 올해 정식 발굴키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 진행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가 보고서로 나왔다. 조계종은 북측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화)과 지난 2003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금강산 신계사 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1월 15일 발간했다. 문화재 분야의 남북 최초 교류인 신계사 시굴조사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불교교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 문화재 교류 퀘거"을 상반기 대응전 기공

이번 조사에서는 물고기를 내놓고 가람을 장건했다는 기록의 장건 설화를 뒷받침하는 물고기 문양의 기와가 대웅전에서 출토됐다. 제한적인 조사로 인해 519년 당시의 유물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고려 중기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유물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종은 남·북이 2004년부터 정식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금강산 지역뿐만 아니라 북측 지역의 문화재 조사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가진 후 신계사 복원을 위한 대응전 기공식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가질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 안성에 불교천문대 세운다

도피안사, 위원회 구성 등 건립불사 착수

천문대 건립과 건립 후 관측 지도 등은 우리나라 관측천문학의 개척자인 이시우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된다. 영월 '별마로 천문대' 건립 등을 자문했던 이시우 박사는 "서구에서는 중세부터 별자리 관측 등에 종교계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제 가톨릭은 별자리 연구를 매우 깊이 해 왔다"며 "우주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야말로 천문학을 연구와 수행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임연태 기자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가 '도솔산 천문대'의 건립을 발원하고 건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최근 "도솔산 천문대를 건립, 각종 강좌를 개설해 천문학과 불교의 가르침이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찰 천문대가 설립되면 불자들이 보다 쉽게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천문학 자료실과, 전 시실, 도서관 등 부대시설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도솔산 정상 부근에 세워지는 도솔산 천문대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0평 규모로 지어지며 최상층에 지름 1미터 크기의 주 망원경 1대가 설치된다. 또 지름 15cm의 굴절 망원경 2대와 30cm 크기의 반사망원경 2대도 설치된다. 주요 부대시설로는 자료실, 관측자료 전시관, 영상관 등이 들어서며 도서관은 천문학 관련 서적과 일반 과학 서적은 물론 불교 서적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2개로 나누어 꾸밀 계획이다. 도솔산 천문대의 건립을 주도할 위원회도 최근 구성됐다. 석주 스님(철보사 주지)을 중심으로 흥교(범어사 전계사), 성타(대구 불교방송 사장), 지환(조계종 기초선원장), 원택(조계종 전 총무부장) 스님과 이시우(천문학 박사), 이순국(신호그룹회장), 윤용숙(여성문제 연구회장) 씨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부위원장과 지도위원으로는 70여명이 동참했으며 불교계 인사는 물론 문화 예술계 인사와 신부, 농업인 등 다양하다. 건립위원회는 천문대의 건립에 약 250여 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어린이 천문학 교실... 2월 3일 열려  
 도피안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제1회 어린이 천문학 교실을 연다. 2월 3일부터 2박3일간 도피안사 파라미타 수행원에서 진행되는 천문학 교실은 '밤별보기' '새벽 별보기' '별자리 그리기' '별에게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시우 박사의 특강과 천문학 관측 비디오 감상 시간도 갖는다. 부모와 함께 참석 할 수 있으며 선착순 30명만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15만원. (031)676-8700

## "승가교육 제도 개선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  
 12일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스님이 되려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은 1월 12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선득도 후교육' 체계를 '선교육 후득도' 체제로 개선해 승가교육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 4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사미계를, 2년 전문교육을 마치고 비구계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2면 범장 스님은 이를 위해 2월 중으로 (가칭)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범장 스님은 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1인1사찰 자매

‘할’

자신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자기무릎을 꼬집어주세요

그림·조태호

- 설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 西翁大宗師 舍利 親見法會

조사선을 닦아 본래면목을 확인하십시오

'근원적인 주체성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 모든 생물, 모든 대자연이 영원의 한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모든 생물을 존중하고 대자연에 아끼는 지혜와 자비로 과학문명을 다시 창조한다면 지구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청정불국토로 건설될 것입니다.'

서옹 대종사께서는 인생동안 선종 진작을 위해 애쓰시며 일체의 맥을 잇는 정통 조사선을 강조했습니다. 조사선을 닦으면 차이를 초월하여 인간의 진실한 모습이 근원적으로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조화롭게 서로 의지하고 은혜를 주고받으며 공존함을 알게 됩니다. 조사선을 닦으면 누구나 자비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진 인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고 인류는 아름답고 즐거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찬란했던 한국선(禪)의 정신을 다시 꽃피운 서옹 대종사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大韓佛敎普溪宗 古佛叢林 白茅寺

- 사리건전법회: 일사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 / 공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서옹당 상순대중사 49제: 일사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막제 - 1월 30일
- 서옹 큰스님 사진전: 일사 - 2004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수행관